

# 양돈불황이 숙명일순 없다



전동웅 본회 회장

본인은 오늘 그동안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돈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양돈업계를 지도하고 이끌어 오신 여러분의 희생적인 노고와 봉사에 대하여 전국 26만 양돈인의 이름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회고해 보면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농가부산물을 이용한 영세한 부업규모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를 비롯한 제반 연관 분야 역시 전근대적인 기초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양돈의 생산성은 과히 세계적인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돈인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어 업계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느 분야보다 먼저 뭉쳐서 해결코자 노력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양돈산업은 타 축종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원만한 생산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와같은 모든 여건의 조성이야말로 전국의 양돈인을 이끌고 지도하며 대표하는 여러분의 값진 노력의 결과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의 각 주산지 시·군에 63개의 시·군지부와 9개 도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3,500여명의 전업양돈농가를 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방대한 양돈인 조직을 이끌고 움직이는 임직원의 수만도 무려 9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생산자의 권익보호와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본회의 기본 목표는 첫째가 전문화를

● 협회는 작년도에 종돈개량을 위해 1천여두의 종돈을 검정, 이 중 600여두를 양돈농가에 보급했으며, 유통구조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500~700원 하던 돈피를 2,000~3,000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

유도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의 통합경제와 고도의 산업사회의 문턱에서 양돈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지는 수단은 바로 산업의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수준을 높이는 길이며, 수요와 생산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같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국의 양돈인 조직이 동원된 가운데 86년 한 해 동안 120회의 각종 세미나와 연간 6회의 경영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양돈인 생산조절대회와 8개 도에서 지방대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TV, 라디오, 신문 등에 널리 보도하고 불황의 문턱에 들어서는 양돈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홍보하였습니다. 연 50회에 걸친 20만부의 주간양돈 정보의 발행과 월간 양돈지를 비롯한 출판, 홍보사업도 여기에 포커스를 집중시켜 왔습니다.

한편 생산성의 향상이 불황을 극복하는 기본적 수단이며 국제적 시장개방 정책에 대응하는 경쟁력 향상의 길이라는 대명제 아래, 본회가 한국 최초로 설립한 종돈능력검정소를 운영하여 연간 1천여두의 종돈의 유전능력을 검정하고 고능력의 종돈 600여두를 전국 양돈농가에 분양하였으며,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자체 연수원을 준공하고 연 5회에 걸쳐 종돈개량과 검정에 관한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산업의 국제적 기술교류 확대를 위하여 연 6회에 걸쳐 43명의 임직원과 회원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였고, 미국의 2개 생산자 단체와 기술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한편, 연 4회에 걸쳐 선진 양돈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생산외적의 분야, 즉 생산원자재인 사료,약품, 기구 등과 유통, 소비, 정책의 변화 등에 더욱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돈산물의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해마다 노력을 해도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앞설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질적인 유통문제는 양돈인의 개별적인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앞장서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86년도에 300마리의 돼지를 시험도축하여 부당한 지육율과 부산물의 거래방법 개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에 부산물 가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도매시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두당 500~7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계산되던 “돈피”의 가격을 두당 2,000~3,000원으로 상향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산적한 유통문제는 우리를 더욱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유통의 합리화와 근대화에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87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불황이 올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같은 주기적 가격파동이 우리가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우리 양돈업계는 생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회원이 사육하는 돼지 1두당 50원씩의 돈육 소비 홍보비를 부과하였는바, 지난 해에 약 100만두에 상당하는 자조금이 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양돈인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이 자조금으로 돼지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가까운 일본의 10억 달러의 돈육시장에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양돈업계는 양돈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기반의 조성과 변화하는 사회·경제 정책에 대응하며, 돈육의 시장을 국내외로 확대하기 위한 회관의 건립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양돈업계는 8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7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양돈업계는 수년간 겪어보지 못하였던 매우 큰 폭의 불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같은 주기적 가격 파동이 우리가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돈인의 의지를 한데 모아 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87년도에는 더욱 많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전국의 양돈인들은 오늘 본회의 전국 대의원 정기총회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와같은 업계의 기대와 호응을 걸머진 양돈인의 지도자이며 동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희생함으로써 산업이 안정되고 발전되며 전국의 양돈인들이 우리를 믿고 따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생산자의 자조적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이로써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생산조절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돈육의 국내외 소비확대를 위한 사업을 양돈인의 자조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올해에는 국제적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양돈업의 전문화와 종돈의 개량속도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양돈인의 지위향상과 조직기반의 조성을 위하

●전국의 모든 양돈인들이 본회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함으로써 협회를 명실상부한 양돈인의 생산자 단체로 발전시킵시다. ●

여 협회 지부의 활동과 회원의 가입을 위한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 목표인 양돈인의 존재의지 확립을 위하여 회관을 준공해야겠습니다.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조적 사업에 모든 양돈인의 참여를 위하여 자조금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며, 양돈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정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양돈산업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지부장과 본회의 임직원 여러분!

우리의 이와같은 모든 사업과 계획은 결국 전국의 모든 양돈인과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전업 양돈인들이 본회의 사업과 조직에 참여토록 지도·권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양돈인의 생산자 단체로 발전토록 합시다. 이 길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끝으로 오늘 전국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군 지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심과 하시는 사업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7년 2월 9일

사단 대한양돈협회  
법인  
회장 전 동 용